

기고

봄철 산불,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답이다

불씨는 잠깐, 피해는 평생이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고, 산과 들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봄이 다가오고 있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등산과 농번기 준비 등 야외 활동이 점차 늘어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와 동시에 산불 위험 또한 가장 높아지는 때이기도 하다.

특히 2월부터 4월까지의 낮은 습도와 강한 바람이 반복되고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줄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제 산불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상시적 재난이 되었다.

산불은 단순히 나무 몇 그루가 타는 사고가 아니다. 한 번 발생하면 수십 년간 가뭄은 산림 생태계를 순식간에 파괴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지역 공동체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

우리 함평군 역시 2023년 4월, 신광·대동면 일원에서 군 역사상 가장 큰 대형 산불을 겪으며 641ha가 넘는 소중한 산림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산림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만, 다시 울창한 숲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산불피해지 복구와 산림 회복을 위해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림 사업과 함께 지역 안전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히도 이러한 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군민과 공직자, 산불진화대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한 결과, 지금까지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도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 없이 안정적인 산불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산불 발생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의 상시 운영 ▲초동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반복 훈련 ▲산림 인접 지역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정책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아울러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다. 산불 제로화를 이어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 사항은 분명하다.

첫째,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논·밭두렁이나 주택 주변에서의 쓰레기·영농부산물 소각은 가장 빈번한 산불 원인 중 하나다. 특히 봄철에는 마른 풀과 낙엽이 많아 불길의 순식간에 확산된다.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은 물론 원상복구 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

지속·대형화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2026. 2. 1.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었다.

둘째,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는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ライター, 버너, 담배 등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에 오르기 전 소지품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길 바란다.

현행 법령에 따라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흡연이나 취사는 엄격히 금지돼 있고 인화물질 소지 자체도 제한된다. 이는 단순한 규제라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불조심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다. 지금 이 순간의 관심과 실천이 우리의 숲을 지키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함평군 부군수 강하춘

미국과 이스라엘의 두 나라가 2월 28일 동시다발적으로 이란을 급습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미사일 시설을, 이스라엘은 아야톨라 하메네이(86세) 등 정권 지도부의 거처를 분담 타격하는 방식이었다. 무자비한 두 나라의 선제 타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군 참모총장 압둘 라힘 무사비, 알리 샴카니 국방위원회 사무총장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란군은 이스라엘 하이파,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여러 차례 발사했지만, 대부분 방공망에 막혔으며, 일부 사상자들이 발생했다.

칼럼
이동환
칼럼니스트(columnist)



중동 전쟁의 원인과 전망

왜 두 국가가 왜 선제 타격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UN 헌장 51조와 국제법에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조건은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확실한 공격 징후를 발견했을 때, 국가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란은 이런 공격 징후가 없었는데, 두 국가가 이란의 뒤통수를 기습 타격했다. 엄격히 말하면 국제법을 어긴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양측에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규탄하면서,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이 국제법상 합법적인지, 비합법적인지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만들어진 국제법 기준을 확인하라고 외쳤다.

그런데도 두 국가 정상은 합법성을 주장했다. 먼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암살 시도설'과 함께 "우리가 공격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먼저 공격했을 것이다." 또 "머지않아 미국 본토에도 닿을 수 있는 핵무기를 제조할 것이다"라며 억지 논리로 선제공격을 설명했지만,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총리도 '정권교체' 하기 위한 작전 목적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참

수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국제법을 어긴 것이다. 따라서 두 국가의 이번 기습 공격은 국제법을 위반했으니 마땅히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번 중동 전쟁에서 두 국가 지도자의 궁극적인 타격 목적이 무엇인가? 국내 및 국제 여론 언론, 그리고 SNS에서 이와 관련 신뢰할 수 없는 정보들이 범람하여 진실성 찾기가 쉽지 않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미국 트럼프의 이란 공습에 의도는 이란의 핵무기 제조 방지, 중국의 원유 수출 통제, 이스라엘을 통한 중동 장악 등으로 이란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즉 이란은 작년 9월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에 합의한 바 있고, 이란 정부 내에서도 핵 제조 기술 반대파가 있다. 그중에 이번 참수당한 하메네이 였던 핵 제조 시설을 만들지 않았는데, 참수당한 것이다. 또 중국 원유 수출에 있어서 중국 원유 총수입량의 12%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번 이란을 타격하는 이유는 트럼프의 두 가지 이유로 유추할 수 있다.

하나는 트럼프 자신의 위상이다. 공화당에선 지난해 뉴욕시장,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지역 보궐선거에서 참패하였다. 올해 2월 트럼프 '뒷발' 텍사스에서 참패하여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이 커지고 있고, 미국 내 트럼프 지지도가 작년 말 최후 저항선 40%가 무너졌다. 또 다른 하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 관세 무효화의 연방대법원 판결에 불만이 표출되어 이란 어리석은 기습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는지 생각이 든다.

이스라엘 총리의 행보를 보면 숨은 통치 전략이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1996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 걸쳐 17년 넘게 총리를 지낸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기 총리이다. 권력이 길면 탈이 나는 법이다. 2020년부터 뇌물 수수,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됐고,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하레디'에 대한 집적 추진 논란이 되면서 코너에 몰려있다. 또 지금(3월) 예산 심사가 있는데, 이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조기 총선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네타냐후 총리가 자칫 구속되거나 총리 재선될 확률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

리는 이란을 기습공격해서라도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미국은 중동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유는 역사가 말해준다. 70년대 베트남 전쟁 20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년 각각 소요됐지만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굴욕적으로 타협하고 철수했다. 또 러·우 전쟁도 4년 동안 걸려도 종결시키지 못했다. 미국은 장기전, 게릴라전에 약하다. 이란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장기전에 약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 이란은 장기전을 원할지 모른다. 전쟁이란 시작은 쉽지만, 네트워크와 드론 전쟁 시대에는 끝내는 것은 쉽지 않다.

전쟁 종결 핵심 키는 이란이 가지고 있다. 최고의 지도자를 순식간에 참수해 버리는 상황에서 그의 아들이 권좌에 앉았는데 골 깊은 감정에 쉽게 끝날 수 없다. 인구 8,600만 명과 혁명수비대(IRGC), 비정규군이 강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고, 주변국 미군 기지, 이스라엘에 공격하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원한 국가 단체(헤즈볼라, 하마스, 지하드, 후티 반군 등)의 네트워크가 있어 쉽게 끝내기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의 전문가이다.

이번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단순한 감정싸움이나, 리더의 모략, 안보 위협과 국가 이익이 얽히고설킨 결과물이다.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전과 이란 내 새로 집권한 세력들의 향방에 따라 우리 삶에 미칠 경제적 파동의 크기도 달라질 것이다. 지금은 막연한 공포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냉철하게 주시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음력 1월 21일)

Grid of 12 daily fortune predictions with zodiac icons and text. Includes predictions for various zodiac signs like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Publication information table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contact info, staff list, and subscription rate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Life Line' (대한민국의 생명선)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expressway system. Features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and logos for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nd 50th anniversary.